

韓國老年學研究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1997, Vol. 6, 89-110

평생학습사회에서의 노인교육

정종식

순천전문대학 유아교육과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평생학습사회
- III. 학습자로서의 노인
- IV. 노년기의 학습능력
- V. 노년기의 학습방법
- VI. 맺는 말
- 참고문헌

I. 들어가는 말

의료 및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킴과 동시에 인위적으로 출산률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2

이 논문에 관한 일체의 서신왕래는 (우) 540-743 전남 순천시 덕월동 224-9번지 순천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정종식 교수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년부터 추진해온 가족계획 사업은 1960년 여성 1인당 6.0명씩 출산하던 비율을 1984년에는 2.1명, 1987년에는 1.6명으로 저하시켰다. 한편 통계청 자료(<표 1> 참조)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1970년 63.2세(남 59.8세, 여 66.7세)에서 1995년 73.5세(남 69.6세, 여 77.4세)로 늘었고, 2010년에는 77.0세(남 73.3세, 여 80.7세), 2030년에는 79.0세(남 75.4세, 여 82.5세)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장래인구추계

		1995	2000	2005	2010	2020	2030
인구규모 (천명)	총인구	45,093	47,275	49,123	50,618	52,358	52,744
	남자	22,705	23,831	24,778	25,536	26,384	26,492
	여자	22,388	23,443	24,345	25,081	25,974	26,252
인구구조 (%)	0-14세	23.4	21.7	21.2	19.9	17.2	16.0
	15-64세	70.7	71.2	70.1	70.2	69.6	64.7
	65세 이상	5.9	7.1	8.7	9.9	13.2	19.3
부양비 (%)	총부양비	41.3	40.4	42.6	42.6	43.6	54.5
	유소년 부양비	33.0	30.4	30.3	28.4	24.7	24.7
	노년부양비	8.3	10.0	12.3	14.2	18.9	29.8
평균수명 (세)	전체	73.5	74.9	76.1	77.0	78.1	79.0
	남자	69.6	71.0	72.3	73.3	74.5	75.4
	여자	77.4	78.6	79.7	80.7	81.7	82.5

자료 : 통계청 (1996. 12), 장래인구추계

UN의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4% 미만인 나라를 청년국, 4-7%인 나라를 장년국, 7% 이상인 나라를 노년국이라 한다. 이 노년국을 다시 7-14%인 나라를 고령화(aging) 사회, 14% 이상인 나라를 고령화된 (aged) 사회라고 한다 (차갑부, 1997). 우리 나라의 경우 <표 1>에서 처럼 전체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구성비는 1960년 2.9%, 1990년 5.0%에서 1995년 5.9%로, 그리고 2000년에는 7.1%로 UN의 기준에 의한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한편 노동능력이 없는 14세 이하 인구는 1995년 23.4%에서 2010년에는 19.9%, 2030년에는 16.0%로 감소하게 되지만, 15세 이상 65세 이하의 생산 연령층(전체 인구의 64.7%)은 노년층의 증가로 65세 이상 및 14세 이하 인구를 부

양해야 하는 부담이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따라서 부양자들의 부양 부담을 줄여 주는 한 방법으로 일할 능력이 있지만 사회적인 제도(정년제도)로 인하여 자신의 의사와 반하여 사회 활동을 중지하게 되는 노인 인력을 사회에서 재활용하는 문제를 재고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사회복지적 차원을 넘어서 교육적 측면에서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본고에서는 평생 학습사회라는 입장에서 노년기의 학습 능력을 살피 봄으로써 노인들의 학습욕구를 상승시켜 노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을 사망의 순간까지 발휘할 수 있게 하고, 사회에서는 노인들의 원숙함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평생학습 사회

1960년대 중엽부터 1970년대 초에 걸쳐 평생교육과 학습사회(learning society)라는 두 가지 새로운 용어가 미래 교육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개념으로 교육계에 등장하였다. 이 두 가지 개념은 별도의 계보에 속하는 것이지만, 전통적인 교육체제에 도전한다는 의미에서는 공통적이다. 특히 학습사회라는 용어는 1968년 Hutchins가 「학습사회(Learning Society)」라는 저서를 출간하면서 처음 등장했다 (차갑부, 1997). 그 후 1972년 UNESCO의 교육발전국제위원회가 「존재하기 위한 학습(Learning to Be)」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그리고 1973년 미국 카네기 고등교육위원회(The Carnegie 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가 「학습사회를 지향하여(Toward a Learning Society)」라는 보고서를 출간하게 됨으로써 학습사회라는 용어가 일반화 되었으며, 각국은 그 이념구현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하여 서두르기 시작했다 (오기형, 김현자, 1975; 차갑부, 1997).

그러면 학습사회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자. Hutchins은 학습사회를 교육기회가 단순히 모든 성인에게 열려져 있는 사회가 아니라 학습·자기실현·인간됨을 교육의 목적으로 하는 인간화 사회라고 지적했다 (차갑부, 1997). 이러한 맥락에서 UNESCO의 「존재하기 위한 학습(Learning to Be)」(통칭 Faure 보고서)이라는

보고서에서는 학습사회 지향을 위한 21개 권고안을 제시했는데, 예를 들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있는 처지에 있어야 한다. 평생교육의 개념은 학습사회의 핵심(keystone)이다”,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도달하는 정점은 성인교육이다”, “교육이 전체 사회의 기능이 될 때까지 교육은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등 아동이나 청년기 이후 성인기에서도 학습이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오기형, 김현자, 1975).

한편 급속하게 고학력화되고 있는 미국사회의 교육문제를 다루고 있는 카네기 고등교육위원회는 「학습사회를 지향하여(Toward a Learning Society)」라는 보고서에서 중등후 교육을 학습사회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체계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차갑부, 1997). 미국판 학력주의라고 불리어지는 자격증주의(credentialism)에 의해 1960년대부터 미국에서는 고등교육이 급속하게 확대되었다. 그 결과 취학자가 증가하고 장기간에 걸쳐 청소년들이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같은 현실에 대해 카네기 보고서는 개인이 노동과 교육, 봉사를 자기의 희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을 요구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성인에게 대학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는 일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사회대학과 방송대학 등 다양한 교육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기에 학교에서 습득하는 자격의 유무로 그 이후의 인생이 구속받지 않기 위해서는 성인기 동안에도 대해 평생에 걸쳐 다양하고 체계적인 학습기회를 보장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카네기 보고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1) 중등후 교육은 소수 청년들을 위한 복지보다는 모든 연령의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 2) 모든 청년을 위한 다양한 길은 생활·노동으로서 사회봉사의장에서 창조되어야 한다.
- 3) 연장자도 청년과 함께 교육기관을 이용해야 한다. 도서관과 박물관과 같은 계속적인 교육이 모든 연령의 사람들에게 열려야 한다. 그리고 연령층을 분리하고 있는 교육상의 장애가 제거되어야 한다.

- 4) 교육은 모든 사람이 하나의 시도에서 다른 시도로 생활의 흐름을 용이하게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하고, 인생과정에서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노동·교육, 그리고 여가 사이의 틈이 허물어져야 한다.
- 5) 중등교육은 그 형태가 다양해야 하는데, 학문적(academic) 프로그램이 그 중심으로서 존속하고 최고의 위신과 최대의 원조가 부여되어야 한다.
- 6) 고등교육은 학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전념하고, 준(準) 및 비(非)학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대부분을 그 밖의 기관에 맡겨야 한다. 또 고등교육은 상당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학문과 우수한 지도자의 중요 원천으로 존속해야 한다.
- 7) 이들 목표에 입각한 새로운 정책은 재정, 교육기관 수준의 인정 및 교육기관간 조정이라는 점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 8) 학습사회는 보다 좋은 사회이다.

역시 Illich는 「탈학교 사회(Deschooling Society)」라는 저술에서 학습사회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차갑부, 1997). Illich는 산업사회 이후에 발달한 학교 제도는 교육뿐 아니라, 학교자체를 결과적으로 학교화(schooling)시킨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현상으로 말미암아 학교와 교육이 동일시되고 있으며, 교육과정과 목적이 혼동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의무교육제도에서 기인한 그 학교화 현상은 Illich가 비판한 핵심적 내용이다. 결국 Illich는 교육의 피라미드 구조를 해체시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학교장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변해야 하며, 학습자가 신원에 대한 증명이나 가계 및 문벌에 관계없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경로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학습사회론을 제시하였다.

곧 학습사회는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시켜 인간화 교육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평생학습사회교육은 공간적 차원에서 보면 교육이 가정과 학교가 아닌 사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교육으로 볼 수 있고, 교육대상의 측면에서 보면 교육의 수혜자가 주로 성인이기 때문에 성인교육이라할 수 있지만, 시간적 차원에서 보면 학교를 졸업한 후 평생동안 지속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계속교육 또는 평생교육이라 할 수 있다 (권대봉, 1996).

III. 학습자로서 노인

1. 노화이론

노인에 대한 개념 정의는 일반적으로 한 시대의 사회, 문화, 정치적 배경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면, 우리 나라에서는 대한 노인회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생활보호법 상으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도 65세 이상을 노인의 범주로 규정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인간은 나이를 먹으면 왜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쇠퇴, 즉 노화현상이 일어나는가? 어떤 질병이나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노화의 원인이나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학자들은 인간의 노화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 주요 학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생물학적 견해

노화현상에 대해서 생물학적으로 접근하는 입장은 인간의 노화를 세포화학적물질이 자연적으로 변화된 현상이라고 본다. 생물학적 견해는 노화예정설, 소모이론, 유해물질 축적설, 체세포 돌연변이설, 소멸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배철영, 이영진, 1996). 노화예정설에 따르면, 생물체의 수명은 고정된 계획이나 체세포의 유전자에 존재하는 유전시계(genetic clock)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Shock, 1977). 즉 생명체의 수명은 종에 따라서 고정되어 있는데, 나이가 들어 여명이 짧아질수록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필요한 DNA가 생성되지 않아 신체 구조와 기능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설명이다. 한편 소모이론(wear and tear theory)은 기계나 물체를 장기간 사용하게 될 경우 소모현상이 일어나듯이 신체도 장기간 사용으로 인하여 소모되면서 노화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즉 기계 부속의 마멸현상에 비유하여 인간의 신체 기관도 사용할수록 점진적으로 퇴화되고 마멸되는 것

으로 본다 (Shock, 1977).

유해물질 축적설(waste accumulation theory)에 의하면, 생명은 일정한 양의 에너지 축적과 더불어 시작되는데 그 축적된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생을 영위하다가 에너지가 고갈되면서 노화현상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Curtis, 1966). 신진대사에 의해 생긴 유해물질이 완전히 체외로 배설되지 못하고 축적되어 세포의 대사활동에 장애가 생겨 세포 기능이 쇠퇴해지고 세포 구성 성분이 변하여 노화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건강, 생활과학연구소, 1997).

체세포 돌연변이설(somatic mutation)은 노화를 “돌연변이 이론 (Mutation theory)”으로 설명한다. 생체의 일부 세포들은 세포 특유의 단백질을 생성시키는데, 이 단백질은 전체 생체에 있어서 이상 물질로 작용한다. 이 과정에서 전체 생체는 이물질적 단백질에 대항하기 위해서 항체를 형성하게 되지만, 이물질적 단백질은 면역성을 길러서 돌연변이화된 세포의 수가 급증하게 되고, 결국 인간의 생체조직도 돌연변이화된 세포들로 변형되면서 본래의 기능이 약화되어 버린다 (Makinodan, 1977). 한편 노화는 세포가 방사선이나 기타 원인에 의하여 상해를 받으면 세포 고유의 성질이 변하는데, 일단 해로운 변이가 발생하게 되면서 노화가 영속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노화의 진행은 신체세포 변이의 수적인 증가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는 입장이다. 또 소멸설은 모든 세포들이 인간의 연령 증가와 더불어 소멸된다는 신경의학적 입장이다 (Bondareff, 1973).

2) 사회학적 이론

사회학적인 입장에서는 노화현상을 사회적 와해현상으로 보는데, 예를 들면, Cumming과 Henry는 노화현상을 “사회적 격리 (social disengagement)현상”이라고 했다. 그들에 의하면, 사람은 노화와 더불어 타인과의 관계를 감소시키게 되는데, 궁극적으로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로부터 평화롭게 이탈하면서 상호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준상, 1990). 이 주장에 따르면, 인간의 죽음은 필연적이므로 사회의 구성원인 개인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어떠한 형태로든 사회적인 권한이나 역할을 다음 세대에

게 이양해 주어야 사회가 질서있게 존속된다는 것이다. 즉 나이가 들면 죽음을 염두에 두고서 권한이나 역할을 다른 사람에게 이양하면서 사회와 맺었던 연결 고리를 점차 끊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직업세계에서는 노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생겼는데, 이러한 차별은 노화과정을 잘못 이해한 까닭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개인의 신체·정신적 능력에 상관없이 직장을 떠나야 하는 정년제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정년제는 개인이 자의에 의해서 직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특정 조직에서 임의적으로 개인을 직장에서 떠나게 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정년제는 개인에 의한 이탈이 아니고 사회에 의한 이탈이라 할 수 있다 (한준상, 1990).

3) 발달심리학적 입장

인간의 발달 단계를 논하면서 Piaget나 Freud 등은 인생의 초기 단계를 중시했지만, Erikson이나 Harvighurst 등은 인생의 전생애를 중시했다. 그 예로 Harvighurst는 노년기를 인생의 쇠퇴기로 보고 있다. 즉 노인들은 체력과 건강을 상실하게 되고 사회적 역할의 상실로 인하여 수입원을 잃게 되며 배우자, 친척, 친구들과도 헤어지면서 사회적으로 무용한 인간이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Erikson은 인성의 발달 단계를 8단계로 나누면서 맨 마지막 단계를 노년기로 보고 이를 통합성과 좌절감이 대립되는 시기로 보았다. 여기에서 통합성이란 자신과 자신의 생을 다른 것으로 대체시킬 수 없다고 하는 합리화 현상이다. 곧 자신의 생애가 유의미했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것이었다고 생각하면서 인생의 마지막 단계를 감사하면서 살려고 한다는 것이다. 한편 좌절감이란 이제 생을 다시 시작할 수도 없고 어떤 다른 대안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년기에는 좌절감을 극복하고 자아 통합을 이루려는 생활 자세가 필요하다.

2. 노인교육의 필요성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기능적인 능력이나 환경의 변화에 적

응하는 능력이 감소하지만, 노화가 일어나는 속도나 정도는 개인간의 차이가 매우 심하다. 어떤 사람은 보통 사람에 비하여 노화가 매우 빠르게 나타나 적응력이 쉽게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매우 느리게 나타나 정년 후에도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지만 마땅한 일거리를 찾지 못하여 갈등에 빠지기도 한다. 이에 노인교육의 필요성을 정신적인 측면, 신체건강 유지의 측면, 사회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정신적인 측면에서 노인교육의 필요성을 보면, 노인들이 생활하면서 겪는 정신적인 고통중의 하나는 가정이나 사회로부터의 역할 상실이다. 산업사회의 발달은 가족제도의 변화, 즉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화로의 변화를 초래하여 가정에서 노인의 역할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가족들의 노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해소시켜 버렸다. 따라서 노인들은 가정에서 최고 권위자로서의 상징적 위치를 상실하게 되었다. 또 사회적으로는 자신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여러 가지 역할들을 상실함에 따라서 노인들의 행동 반경도 자연스럽게 좁아지게 되었다.

노인들이 겪게 되는 또다른 정신적인 고통은 가정이나 사회로부터의 역할 상실에 따른 고독감의 경험이다 (고영복, 1991).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배우자와 친구가 사망하게 되고 사회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서 접촉하던 사람들과도 멀어지게 된다. 노년기에는 이처럼 다방면의 역할이 상실되면서 고독에 쌓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노인 교육은 노인들에게 역할 상실에 따른 고독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하고, 노인들에게 사회·문화적인 변화와 아울러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의 혼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 곧 노인교육은 사회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동참할 수 있게 만드는데 절대적이다. 역시 가치관, 전통, 관습, 규범 등이 급격하게 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노인들에게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이들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노인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신체 건강의 유지 측면에서도 노인교육이 요망된다. 젊었을때 왕성한 활동력으로 근육, 내장, 뼈 등의 신체 기능이 활발히 움직였으나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러한 기능들의 활동이 둔

화된다. 이런 시기에 노인들에게 교육이라는 틀속에서 규칙적인 활동을 통해서 신체기능의 급격한 저하를 예방할 수 있다. 교육을 통하여 노인들은 다양한 접촉의 기회를 제공받아 건강에 관한 정보교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노인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소위 노인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은 노인들에게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사회에 봉사하도록 만드는 토대가 된다.

셋째,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노인교육은 가정이나 직장에서는 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수용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현실 적응 능력을 길러 준다. 즉 노인교육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소외되지 않고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들어 준다. 노인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모두 다르더라도 교육을 통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넷째, 경제적인 측면에서 노인교육은 이 시대의 노인들이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온 힘을 쏟은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필요하다. 그들은 정년제의 적용에 따라 직장을 그만두어 일정한 수입원이 끊기게 되었지만, 노인들에게 경제적인 자립능력을 길러 줄 필요가 있다. 노인들에게 노후를 안정되고 경제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주는 것이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는 한 방법이 된다.

IV. 노년기의 학습능력

인간은 나이가 들어 갈수록 신체적 기능이 젊은 사람에 비하여 다소 떨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역시 연령의 증가와 함께 학습능력의 결여, 지능의 감퇴, 창의력의 감소 현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인식들이 어떠한 연구 결과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믿음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만약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면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교육이 가능할 것인가를 재고해야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노인기의 학습능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노인교육의 효과를 위해서는 노인 학습자들의 교육적 요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교육적 요구란 노인 자신이나 조직 사회가

설정된 성취능력 기준과 현재수준간의 차이를 말한다 (권낙원, 1991). 한준상 (1990)은 노인들에게는 최소한 사회적응에 대한 욕구, 많은 사람과 친교하고자 하는 욕구,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욕구, 자신의 존재를 돋보이게 하고 또한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욕구, 생물학적 심리적 상황과 조건을 인지하고 이를 수용하려는 인간존재 초월성에 관한 욕구 등 다섯 가지의 교육적인 욕구가 있다고 했다. 이러한 교육적 욕구들은 아래의 정신적 능력이나 자세에 따라 다를 것이다.

1. 지능

노화에 따라서 문제해결이나 추리 능력, 개념형성 등의 인지능력이 쇠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지능이 연령 증가와 함께 쇠퇴한다고 속단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현재까지 논의되었던 성인기 이후의 지능 변화에 관해서는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우선, 성인기 이후에는 지능이 감소한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 이 입장에서는 성인의 학습 능력이 평생을 통해 지속되지만 45세경부터 70세까지는 1년에 1% 정도 감소를 보인다고 믿는다 (김동위, 1996). 또 지능은 성인기 이후에서도 변하지 않고 항상성을 유지한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지능은 안정성을 유지한다고 믿는다.

마지막으로 가장 설득력있는 주장은 지능을 구성하는 하위요인들중에 부분적으로 상승하는 요인과 감소하는 요인도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예를 들면, Wechsler는 언어성 영역과 동작성 영역으로 구성된 성인용지능검사(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 WAIS)를 제작하였다. Wechsler의 검사 도구를 가지고 연령의 증가와 지능과의 관계를 검사한 결과 연령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별로 퇴화하지 않는 요인들이 나타났다. 즉 언어성 검사의 일부인 어휘력, 상식, 판단력 등은 40세까지도 쇠퇴를 보이지 않았으며, 어휘력의 경우는 오히려 60살까지도 완만한 상승을 보였다. 그러나 동작성의 검사의 영역에서는 대부분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Kimmel, 1990).

또 지능의 내용을 요인분석을 통해 유동적인(fluid) 지능과 결

정화된(crystallized) 지능으로 나눌 때에도 연령 증가에 따른 지적 능력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서 유동적인 지능은 과거 경험이나 교육, 훈련 등과 상관없는 일반적인 정신능력을 뜻하는 반면, 결정화된 지능을 주로 경험이나 교육, 훈련 등을 통해서 얻어진 능력을 뜻한다. 결정화된 지능은 노년기 이후까지도 상승이 가능하나 유동적인 지능은 청년기에 절정을 달하고 중년기까지 뚜렷한 감소 현상을 나타내지 않다가 중년기 이후 사망시기까지 계속 감퇴하는 현상을 나타낸다 (Horn & Donaldson, 1976).

이처럼 노년기에는 지적능력이 결코 쇠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종단적 연구 및 횡단적 연구방법의 결과를 비교할 때도 증명된다. 종단적 방법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개인의 언어 능력이나 지능이 55세까지 상승하다가 그 이후에는 서서히 감소하는데 70세 때의 지능이 25세 때의 지능보다 더 낮아지지 않았으며, 횡단적인 방법을 사용했을 때 지능이나 언어 능력이 35세 때 절정을 이루고 그 이후 점차 감소하다가 70세 때 최하위에 머물게 되었다 (Schaie & Strother, 1968). 이상에서 노년기의 지능 변화를 고려할 때 노인교육이 노인들의 욕구를 채우는 효과가 예상된다.

2. 문제해결능력 및 창의력

문제해결능력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형성하고 그 아이디어의 적절성에 대한 검증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채택 또는 무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Kimmel, 1990). 곧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장면에 직면했을 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노인들의 문제 해결 능력이 젊은 시절과 비교해서 상승, 퇴화 또는 정체되는가의 문제가 연구의 관심사가 될 수 있다.

Arenberg (1968)에 의하면, 추상적인 개념 형성 과제의 해결은 나이가 들수록 느리나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을 때에는 70세 이전의 연구대상자들간의 연령간에는 차이가 없음을 발견했다. 그러나 70세 이후로는 문제해결능력이 감소함을 발견했다 (Arenberg, 1968). 또 일상적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성인 초기와 노년기를 비교하는 연구에서 성인의 일상적인 문제해결 능력이 연

령의 증가에 따라 쇠퇴한다기 보다는 문제에 대한 경험 유무에 의해 결정되었다 (김선자, 윤진, 1992).

Lehman (1962)은 창의력이 뛰어났다고 여겨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애 기간중 어느 때에 뛰어난 업적을 남겼는지를 조사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30대와 40대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겼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한준상 (1990)은 이를 해석상의 오류로 받아 들이고 있다. 왜냐하면 Lehman 의 자료에는 요절했거나 단명한 사람들까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Dennis (1966)의 창의적 업적과 연령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인문학분야(역사·철학)에서는 70세 이후에도 창의적인 업적은 계속되나 과학 분야에서는 40세에 절정을 이루다가 60세까지는 그 감소 현상이 완만하고 그 이후에는 현저한 감소 현상을 보인다. 또 예술 분야에서는 40 세까지는 활동이 상승하다가 그 이후 60대까지 감소한후 70대에는 급강하하는 현상을 보인다. 물론 70대 이후에도 창의적인 작품활동을 계속하는 사람도 있다 (Dennis, 1966).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볼 때 평생학습 사회에서의 교육은 당연히 노인들에게까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3. 노년기의 발달과업

인간은 수태의 순간부터 사망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인간에게는 그러한 변화를 겪게 되는 단계마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부여된다. 동양에서도 孔子는 “論語” 위정(爲政)편에서 인간의 성장 단계별로 여러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다. 吾十有五而志于學, 三十而立, 四十而不惑, 五十而知天命, 六十而耳順, 七十而從心所欲, 不踰矩가 바로 10대에서 70대에 이르기까지 연령 단계별로 성취해야 할 인격도야의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한편 Havighurst (1972)는 개인의 생애중 어떤 특수한 시기에 반드시 수행해야 할 발달과업이 있다고 보고, 그 과업을 훌륭히 성취하면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나중에 겪게될 다른 과업도 잘 치러 나가게 된다고 보았다. 만약 이에 실패하면 개인적으로 불행은 초래 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인정도 못 받고 나중에 겪게될 다른 과업도 잘 치를 수 없게 된다는 주장이다. Havighurst의 설명에

따르면, 60세 이후로 구분된 노년기에는 ① 신체적 힘과 건강의 쇠퇴에 적응하는 것, ② 은퇴와 수입감소에 적응하는 것, ③ 배우자의 사망에 적응하는 것, ④ 동년배와의 유대관계를 성립하는 것, ⑤ 사회적 의무와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 ⑥ 만족할만한 물리적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 등을 과제로 제시하였다(Havighurst, 1972).

한편 김종서 등 (1982)은 한국인의 발달 과업을 연구하면서 노년기의 발달과업을 지적, 정의적, 사회적 및 신체적 영역 등 4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별 발달 과업을 제시하였다. 우선 지적영역으로는 세대차와 사회변화를 이해하기, 은퇴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생활 배우기, 정치나 경제, 사회 및 문화에 대한 최신 동향 알기, 그리고 건강 증진을 위한 폭넓은 지식 갖기 등의 과제가 있으며, 정의적 영역에는 적극적으로 일하고 일하려는 태도 유지하기, 취미를 계속 살리고 여가를 즐겁게 보내기, 정년퇴직과 수입 감소에 적응하기, 소외감과 허무감을 극복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기, 배우자 사망후의 생활에 적응하기, 그리고 동료 또는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준비하기 등의 과제가 부과된다. 또 사회적 영역으로는 동년배 노인들과 친교유지하기, 가정과 직장에서의 일과 책임을 합당하게 물려주기, 가정이나 사회에서 어른 구실하기, 그리고 자녀 또는 손자들과 원만한 관계 유지하기 등의 과제, 그리고 신체적 영역에는 줄어가는 체력과 건강에 주의하기, 노년기에 맞는 간단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기, 건강유지에 필요한 알맞은 섭생하기, 및 질병이나 쇠약에 대한 바른 처방하기 등의 과제가 부과되었다 (김종서 등, 1982).

한국 노인들의 발달과업에 열거된 내용들은 개인들이 자신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들이다. 그러나 노인들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과업들도 있지만 사회와 더불어 해결해야 할 것들도 있다. 사회와 더불어 해결해야 할 과업들은 사회교육이 말아야 할 과업들이다. 국가와 공공단체들은 노인들이 보다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하면서 주어진 과업을 완수할 수 있는 교육적인 환경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V. 노인기의 교육방법

1. 노인교육의 목표 및 내용

노인들을 위한 교육은 국가나 사회, 그리고 지역사회가 지향하는 교육이념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하며 아울러 노인복지법이나 노인헌장, 노인강령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또한 노인교육은 사회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과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결국 노인교육은 노인들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기 때문에 노인들의 학습욕구에 대한 전영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차갑부 (1997)는 고령자 교육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1) 건강 및 안전, 2)지식과 교양, 3) 가정과 사회, 4) 취미와 오락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건강 및 안전에 관한 학습: 학습목표는 올바른 식생활, 적절한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건강의 유지와 증진, 살기 좋은 환경 조성, 건강의 관심 및 질병에 대한 이해와 예방, 정신적인 충실한 생활의 유지 등이다. 또 학습의 주제 및 내용들은 다음의 표와 같다.

주 제	학 습 내 용
올바른 식생활	즐거운 식사, 규칙적인 식생활, 균형있는 식사 식사와 성인병의 관계, 고령자용 요리
스포츠·레크레이션	스포츠를 통한 스트레스의 해소, 연령과 운동량과의 관계, 노화방지 스포츠, 건강을 위한 레크레이션
건강의 유지·증진	마음의 건강법, 질병예방
안전한 생활	고령자와 교통사고, 가정생활의 안전, 재해시의 대피
살기좋은 환경	살기좋은 지역환경

정 종 식

(2) 지식과 교양에 관한 학습: 학습목표는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 정보의 선택과 활용, 자기의 생활향상, 상상력 제고, 사는 즐거움,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또 학습의 주제 및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주 제	학 습 내 용
여가와 교양	여가에 대해서, 정치·경제, 예술·문화, 오락·교양
정보	올바른 정보 습득
새로운 생활방식의 발견	문화센터 활용, 늙는 지혜의 전승
현대사회의 이해	현대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지식·기능
고령자와 연금	연금 활용방법

(3) 가정과 사회에 관한 학습: 학습목표는 가족의 역할과 책임을 자각한 밝은 가정 만들기, 건전한 가풍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가정 만들기, 자원의 중요성을 알고서 물질에 감사하는 마음 기르기, 타인의 입장을 존중하고 차별과 편견 없는 사회 만들기, 봉사활동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자각하여 활력있는 사회 만들기, 자연보호와 활용을 위해 노력하기, 향토문화의 이해와 그 보존·발전에 힘쓰는 향토애 기르기, 국제사회의 이해와 세계동향 지각하기, 국제적 감각을 기르고 깊이 있는 교류와 친선 도모하는 것 등이다. 또 학습의 주제 및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주 제	학 습 내 용
가족의 역할	가족관계, 가족에 있어서 고령자의 역할
가풍	좋은 가풍 계승과 새로운 가풍 만들기
일상생활과 자원	유한한 자원을 유용하게 활용하기
인권존중	자기와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약자를 생각하는 마음 갖기
원만한 인간관계	친구와 교류, 이웃과 교제

평생학습사회에서의 노인교육

봉사활동	고령자가 할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
고령자의 역할	활력있는 지역, 타세대 이해, 고령자 인재활용
자연의 매력	자생식물의 감상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재인식, 빼어나 자연환경 이해
자연보호	야산·하천·해변의 자연보호, 오염현상, 자연이 주는 혜택 재인식
향토문화	토지문화 이해·활용
문화재 보호와 활용	문화재의 중요성과 그 활용방법
국제이해	국제 경제문제 이해, 세계평화 이해·기여
교류와 친선	외국의 문화와 생활사정 이해

(4) 취미와 오락에 관한 학습: 학습목표는 취미의 의미와 역할 이해, 자신의 취미를 발견과 신장, 보람있는 삶의 파악, 시간의 유의미한 활용, 보람있는 생활의 설계 등이다. 또 학습의 주제 및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주 제	학 습 내 용
취미에 대하여	취미의 의미·역할, 자신의 취미의 확실한 자각
취미와 생활	취미생활, 돈과 마음
취미 신장	실제 취미생활
작품발표	취미활동을 통해 작품 만들기

2. 노인교육의 원리

노인교육은 일반 학교교육이나 청소년 교육과는 다른 방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심리, 생활방식, 학습동기, 발달과정 등이 청소년들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인교육은 학습자의 연령이나 경험 뿐만 아니라 고령기의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곧 노인교육의 원리는 노인들의 경험을 중시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인격을 완성하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노인교육의 내용 및 특성에 고려되어야 할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볼 수 있다.

우선 노인교육은 개인의 흥미와 욕구를 바탕으로 한 자발성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노인들에게는 틀에 박힌 형식적인 교육보다는 과거 경험에 바탕을 둔 흥미와 욕구 또는 부족했던 분야 그리고 여생 동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관심을 둔 자발적인 참여만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둘째, 노인교육은 오랜 경험을 중심으로 학습자와 교사 혹은 학습자와 학습자간에 상호 경험을 충분히 교환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즉 교육내용이나 방법이 추상적인 강의가 아니라 노인들의 생활과 직결된 경험적인 것들이어야 한다.

셋째, 노인교육은 경직된 체제보다는 융통성이 있는 다양한 체제로 운영되어야 한다. 학습자들의 신체적 조건과 학습매체 준비등을 고려하여 주어진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어야 한다. 넷째, 노인교육은 어떤 사실을 단순히 암기시키는 것보다 그들의 감각 기관을 동원하여 실습하고 실제로 경험하게 하는 직관교육이어야 한다. 다섯째, 노인교육은 학습자의 개인차를 고려한 교육이어야 한다. 즉 학습자 개개인의 개성, 욕구, 흥미 등을 고려한 개별화교육이어야 한다. 여섯째, 노인교육은 노인들로 하여금 사회변화에 적절히 대처하여 세대차를 최소한으로 줄여 나가기 위한 사회화 교육이어야 한다. 일곱째, 노인교육은 노인 교육을 주도하는 교사와 학습자와의 관계가 동등한 위치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교육은 교사의 일방적 지시나 계획에 의한 교육이 아니고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상호 공동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한다.

이상에서 제시한 노인교육의 원리를 토대로 실제 수업의 방법으로 강의법, 문답법, 토의법, 구안법, 현장학습법, 조사활동, 지역사회 자원 인사를 활용하는 방법등이 있다. 또 교육의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시청각 기재, 통신기기, 영화나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서 가정이나 노인정으로 담당교사가 찾아가서 개별 교육을 실시하는 방문교육방법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 및 내용의 노인교육은 확일적이고 진부한 교육의 형태에서 탈피하게 되고 교육대상자 위주의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교육이 이루어 질 것이다.

VI. 맺는 말

후자는 인간의 생애에서 노년기 이전의 단계들이 생의 완성을 위한 준비단계라 한다면 노년기를 인간의 완성이 상실되거나 감소하는 단계로 보았다 (유윤석 등, 1993).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 노년기가 인생의 주기 중에서 가장 긴 기간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노년기를 생을 마감하는 단계가 아닌 성장과 발달이 지속되는 단계로 보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그렇다면 사회는 노인들 자신이 급변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 즉 노인을 위한 교육을 의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것은 노인문제를 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만드는데 있다. 우리 인간은 본의 아니게 노화현상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지만, 노화 그 자체가 자신의 능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노인들은 자신의 삶의 세계가 있으며 그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학습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평생교육의 이념이 등장하면서 교육 기간과 교육대상자에 대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학교교육은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들이 교육의 주 대상자 였으나 이제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물론이고 학교를 졸업한 청소년, 직장인, 직장을 은퇴한 노인 등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는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노인들에 대한 교육가능성에 대하여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인 기능이 저하됨과 동시에 학습능력 즉, 지능, 문제해결력, 창의력, 기억력 등이 저하된다고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평생교육이나 사회교육을 강조하면서도 학교 재학생이나 근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주로 보였을뿐 노인에 대한 교육적인 관심은 소홀했다.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노인학교, 노인교실, 경로당등)에서도 노인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연구가 없이 취미나 오락 등의 내용을 주로 교육하고 있다.

이제 노인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몇 과제들

을 열거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과 노인교육에 대한 보다 철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교육에 관한 이론이 전문적이고 과학적으로 확립되지 않고서는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전체인구에 대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이들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

다음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요구된다. 현재 노인교육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일정한 기준 없이 노인교육담당자가 임의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이 없는 상황에서는 심도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취미활동이나 레크리에이션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기 쉽다. 아울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노인교육 전담 부서의 설치가 요망된다. 효율적인 노인 복지 시책과 노인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단일 부서에서의 기획과 집행이 요구된다. 물론 노인교육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다룰것인지, 복지적인 차원에서 다룰것인지가 먼저 결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규교육기관의 참여가 요구된다. 지역사회에서 비교적 시설을 갖추고 있는 기관은 그 지역사회의 학교이다. 노인교육을 위해서 학교의 방과후나 방학때를 이용할 수도 있다. 교육부에서는 1978년도에 전국 7371개의 초등학교에 학구단위 노인교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노인교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미흡하여 본래의 의미가 많이 퇴색해 버렸다.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충분한 재정 지원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급 학교에는 노인교육 전담교원을 배치하여 노인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루어지게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노인여가 정책에 대한 관심이 촉구된다. 지금까지의 노인정책은 복지차원에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이제는 복지 또는 시혜의 차원을 벗어나 노인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가선용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이 요구된다. 또한 전문가들에 의한 노인여가활용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그 프로그램도 노인의 연령, 성별, 생활수준, 교육정도,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고영복 (1991). *현대사회의 문제*.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 권낙원 (1991). *평생교육과 노인교육*. 서울: 이화문화사.
- 권대봉 (1996). *평생학습 사회교육*. 서울: 학지사.
- 김동위 (1996). *성인의 교육학*. 서울: 교육과학사.
- 김선자, 윤진 (1992). 연령증가에 따른 지능의 변화, *한국노년학*, 12 (2), 190-122
- 김중서, 남정길, 정지웅, 이용환 (1982). *평생교육의 체제와 사회교육의 실태*.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류윤석 외 (1993). *교육의 현상과 전망*. 서울: 단국대학교 교육학연구회.
- 배철영, 이영진 (1996). *노인의학*. 서울: 고려의학.
- 오기형, 김현자 역 (1975). *인간화 교육*. 서울: 일조각.
- 차갑부 (1997). *열린사회의 평생교육*. 서울: 양서원.
- 한준상 (1990). *사회교육과 사회문제*. 서울: 청아출판사.
- 건강, 생활과학연구소 (1997). *현대노년학*.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 Arenberg, D. (1968). Input modality in short-term retention. *Journal of Gerontology*, 23, 462-465.
- Bondareff, W. (1973). The Neural basis of aging. In J. E. Birren & K. W. Schaie (Eds), *Handbook of the Psychology of Aging*, New York: Van Nostrand-Reinhold.
- Curtis, H. (1986). Composites theory of aging. *The Gerontologist*, 26, 143-149.
- Dennnis, W. (1966). Creative productivity between the ages of 20 and 80 years, *Journal of Gerontology*, 21, 1-8.
- Havighurst, R. L. (1972). *Developmental Task and Education* (3rd ed.) New York: David McKay.
- Horn, J. L., & Donaldson, G. (1976). On the myth of intellectual decline in adulthood. *American Psychologist*, 31, 701-719.
- Kimmel, D. C. (1990). *Adulthood and aging* (3rd ed.). New York: John Wiley.

- Leham, H. C. (1962). The creative production rates of versus past generations of scientists. *Journal of Gerontology*, 17, 409-417.
- Makinodan, T. (1977). *Immunity and aging*.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 Schaie, K. W., & Strother, C., R. (1968). The effects of time and cohort differences on the interpretation of age changes in cognitive behavior.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3, 259-294.
- Shock, N. (1977). *Biological theories of aging*.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韓國老年學研究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1997, Vol. 6, 111-130

일본 공적개호보험제도의 구상배경 및 논의과정

엄기욱

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목 차

- I. 머리말
- II. 새로운 사회보장체계의 구상배경
- III. 공적개호보험제도 도입의 구체화 과정
- IV. 맺는 말
- 참 고 문 헌

I. 머리말

19세기 후반 독일에서 사회보험제도가 입법화된 이후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은 노후소득보장, 질병이나 질환 및 각종 재해, 실업 등에 대한 대처로서 노령연금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선진국가들의 수준과 비교한다면 1세기 정도 늦었지만, 1960년대부터의 경제성장과 그에 따른 국민생활 수준과 복지욕구 증대, 노후생활에 대

이 논문에 관한 일체의 서신 왕래는 (우) 506-053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 165번지 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엄기욱 교수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